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한국 관련 지도에 관한 연구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양윤정(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미국 국회도서관의 The Geography and Map Division에는 1982년 Shannon McCune이 소개했던 'Old Korea Atlases and Maps'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 관련 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이미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자료도 있지만,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소개되지 않은 지도들도 그 양이 많다. 다양한 축척으로 제작된 한국 초기 지형도, 'The Collection of Korea'라고 묶여져 있는 지도, 그리고 'Vault'로 나뉘어 소장되어 있는 지도들이다. 본 연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한국 관련 지도를 소개하고, 그 중 역사적·지도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The Collection of Korea'에는 일반도 142종, 주제도(subject 229종, region 29종, city 549종) 807종이 소장되어 있다. 일반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190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제작된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도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많은 양의 주제도에는 인구·교통(철도·도로)·체신·기독교·산업 등 다양한 주제의 지도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한국전쟁 당시 발행되었던 AP 통신의 자료로 사용되었던 지도 및 기사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아직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지도들로 시대·지역에 따른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미국 국회도서관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한국 초기 지형도를 비롯하여, 2000년 초반까지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에서 제작한 다양한 축척의 지형도가 총 62종 소장되어 있으나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

'Vault'본으로 분류된 지도에는 McCune이 소개했던 지도를 포함하여 한국 고지도가 총 22종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를 비롯하여 초기 한글본 전도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필사본으로서 학문적 가치가 있는 지도들이다.

'Vault'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소개되지 않은 중요한 작품들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필사본 지도들이다. 미 국회도서관은 이들 지도들을 전쟁관련 지도로 분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초기 지형도와 함께 보관하여 왔다. 총 50종 96장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工兵大尉 海津三雄, 陸軍歩兵大尉 三浦自孝 등 일본의 參謀本部 소속 군인이 직접 손으로 그려 일본의 한국 침략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自義州府至平壤府略上測圖>와 같은 지도는 1:20만의 대축척으로 그려져 있으며, <自居留地至文川郡路上略圖>와 같은 지도는 1:4만의 소축척으로 그려져 있다. 우모식으로 표현된 지도도 있지만 대부분 등고선으로 고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정확한 방위와 거리 등으로 지형과 인문환경을 표현해 근대 지형도 형식에 가깝다. 지도 내용은 지형, 도로, 취락 및 전담 정보, 역사적 유적, 지역 간의 세밀한 거리

까지 자세하게 나타나있어, 구한말 제작된 지형도의 원본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지도는 당시 조선의 행정 및 경제 상황 파악, 일본의 한국 침략을 위한 구체적 지도 작업, 한국의 지형도 제작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지도학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